

Weekly Brief
R&I trends in Europe

KERC R&I News

EU 연구혁신 정책 및 연구 동향

2024.05.15.

Content

▶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- ① EU 27개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공동 성명서 발표(5.9)
- ② 집행위, 유럽 표준화 규정 재검토 협의 개시(5.10)
- ③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협약서 전체 AGA 발간 예정(5.7)
- ④ 호라이즌 유럽 림섬 펀딩 지급 현황(5.7)
- ⑤ EU 2004년 가입국의 연구 환경 변화(5.8)
- ⑥ EIT Health, 바이오뱅크 및 보건데이터 온라인 허브 구축(5.9)
- ⑦ 유럽의회 AI법 조사위원, 자본시장연합에 AI 활성화 촉구(5.9)

▶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- ① 집행위, R&I 방향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 발간(5.8)
- ② 집행위, 운송 및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1억 6,350만 유로(5.13)
- ③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고 모음(5.14)

▶ EU 연구성과

- ① (성공사례) 미래 공장을 위한 로봇공학 교육 기술 습득



1.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

1 EU 27개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공동 성명서 발표(5.9)

- EU 27개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들은 EU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과학의 개방성 촉진을 위한 공동 성명서에 서명
 - 동 성명서는 글로벌 과학 리더로서의 EU, 과학 개방성 촉진, 과학 및 교육 분야 투자 확대 등이 관련 정책에 반영될 것을 촉구
 - 최초로 공동된 입장을 발표한 EU 회원국의 모든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들은 EU가 강력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과학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며, 정책 결정권자들은 국제과학협력에 방해가 되는 장벽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
 - 한편,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각국 정부의 기술 스파이에 대한 우려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, EU 또한 호라이즌 유럽 및 다른 재정지원 프로그램에 국제협력 범위를 제안하는 등 자유로운 국제협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 - 동 성명서는 EU가 FP10(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)에서 국방 R&D 자금 지원 허용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, 네덜란드 왕립예술 과학아카데미 원장 Dogterom은 이중용도 연구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
 - 더불어 회원국 국립과학아카데미 원장들은 FP10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과 동시에 공공 및 민간 R&D 투자를 최대 3%까지 늘리도록 EU 중앙정부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
 - 성명서에 따르면, 과학과 혁신 분야에서 유럽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연구, 혁신,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며, EU는 R&D에 대한 공공·민간 투자 수준을 평균 GDP의 3%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 EU의 평균 R&D지출은 GDP의 2.2%에 그침
 - 이탈리아 전 교육부 장관 Bianchi는 “우리는 단순히 정부에 예산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, 정부가 일상적인 문제를 넘어 미래를 내다보기를 원한다”고 덧붙임

<출처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open-science/call-incoming-parliament-not-raise-barriers-open-scientific-cooperation>>

2 집행위, 유럽 표준화 규정 재검토 협의 개시(5.10)

-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표준화에 관한 규정에 대한 공개 협의를 개시하였으며, 7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
 - '12년 10월에 채택된 동 규정은 EU의 표준화 정책을 지원하는 규정 제시
 - 표준화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집행위는 '24년 말에 규정을 개정할 계획
 - 이를 위해, EU 및 EEA(유럽경제지역) 국가의 정부, 표준화 기구,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유럽 표준화의 성과, 효율성, 영향, EU 정책과의 연계 등의 측면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

<출처: <https://era.gv.at/news-items/ec-starts-consultation-on-review-of-standardisation-regulation/>>

3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협약서 전체 AGA 발간 예정(5.7)

- EU 집행위원회는 여러 해의 지연 끝에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 협약서 주석판(AGA) 전체 문서를 이번 달 발표할 예정
 - AGA는 EU 그랜트 협약서 모델(MGA)의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가이드 문서로, 집행위는 '21년에 AGA 초안을 발표함
 - 초안에는 지식재산권, 윤리, 성별 및 오픈 액세스 정책 등 호라이즌 유럽 연구 프로그램과 관련한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, 보고 및 점검, 검토, 감사와 인건비에 관한 내용은 누락됨
 - 집행위가 '21~'27년의 EU 예산계획에서 그랜트를 간소화하고 Horizon Europe, Digital Europe, Erasmus+ 등의 모든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, 여러 집행위 총국이 의견을 제시하며 논의가 연장되었고, 이로 인해 AGA 발간이 지연됨
- 대학 및 연구기관은 집행위에 프로그램 규정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촉구
 - 독일 연구기관 연합체 EU 연락사무소 KoWi의 프로젝트 관리팀장 Claus는 프로그램 규정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, 비용 계산, 기록 보관, 감사 및 점검에 필요한 문서 등과 관련하여 확실한 정보가 필요함을 언급함

- 유럽대학연합(EUA)의 이사 Estermann도 AGA 초안은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
- 유럽연구대학연맹(LERU)의 정책 책임자 Keustermans는 “AGA는 법적 명확성과 다양한 EU 기관의 일관된 프로세스 처리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”이라고 말함
- 호라이즌 유럽 연락사무소 네트워크인 IGLO의 공동의장이기도 한 Claus는 제도의 안정성이 중요하며, 인건비와 관련하여 일관된 규정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함

<출처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horizon-europe/commission-publish-long-awaited-explainer-its-grant-terms>>

4 호라이즌 유럽 럽섬 펀딩 지급 현황(5.7)

○ 집행위는 '23년 말까지 13억 유로의 럽섬 펀딩을 지급함

- 럽섬 펀딩은 호라이즌 2020에서 시범 적용된 이후 호라이즌 유럽에 도입되었으며, 수혜자는 각 지출항목에 대해 보고할 필요 없이 과제비를 일괄 지급받을 수 있음
- 집행위의 행정 업무를 줄이고 EU의 연구 지출 오류율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연구계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임

○ 럽섬 펀딩 규모는 빠른 속도로 증가

- '22년 말까지 전체 프로그램의 2%인 3억 600만 유로만이 럽섬 펀딩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, '23년에는 이 비율이 증가했으며, '24년 말까지 30%의 그랜트가 럽섬 펀딩 방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됨
- 한편, 이는 금전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며, '21~'23년 기간 동안 집행위는 EU 자금 300억 유로 이상에 해당하는 10,564개의 호라이즌 유럽 그랜트를 승인하였고, 그중 1,200개에 13억 유로의 럽섬 펀딩이 지급됨
- EU 철도 공동사업단에 2억 4,400만 유로, HE 필라2 클러스터6에 1억 3,000만 유로, 클러스터 5에 1억 6,600만 유로로 가장 많은 럽섬 펀딩이 지급됨
- 럽섬 펀딩 공모의 성공률은 29.5%로 호라이즌 유럽 전체 성공률 15.9%에 대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, 공식적으로 럽섬 펀딩이 성공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음

- 립섬 펀딩이 도입된 프로젝트 유형에는 전통적인 연구 프로젝트보다 표준화, 인식 제고, 네트워킹, 정책 대화 등 조정 및 지원 활동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horizon-europe/heres-how-much-horizon-europe-money-was-handed-out-lump-sums-end-2023>>

5 EU 2004년 가입국의 연구 환경 변화(5.8)

- ※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폴란드, 체코, 헝가리, 슬로바키아, 슬로베니아, 몰타, 키프로스 10개국 이 유럽연합에 가입함
- GDP 대비 R&D 지출 비중은 10개 회원국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, 특히 폴란드는 2004년 0.56%에서 2022년 1.46%으로 가장 큰 변화를 보임
 - 한편, '14년 이후 체코, 몰타, 슬로베니아 3국에서는 R&D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고 헝가리와 리투아니아에서는 정체됨
 - 1인당 GDP는 10개국 모두에서 증가했으며, 특히 에스토니아, 리투아니아, 폴란드에서 증가율이 크게 나타남
- 10개국 중 대부분의 국가에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(FP)에 대한 참여를 늘림
 - EU 신규 회원국은 경험 부족, 취약한 보조금 지원 시스템 등으로 인해 연구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거나, FP7 이후 9개국이 FP에 대한 참여를 늘림
 - 예외적으로 헝가리의 프로젝트 참여율은 FP7 1.2%에서 현재 0.8%로 감소하였으며, 헝가리의 30개 이상의 기관이 경영 구조에 대한 법치 문제로 인해 호라이즌 유럽 참가가 금지되어있으므로 더욱 악화될 수 있음
 - FP 참여를 늘린 국가들은 여러 EU 자금을 지원받았으며, 그중 하나인 유럽지역개발기금(ERDF)은 각국의 연구 인프라와 대학 구축을 지원하고 인재를 유치하여 R&I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함
 - 2023 유럽혁신스코어보드(EIS)에 따르면 키프로스의 혁신 성과가 EU 평균보다 높으며, 에스토니아, 슬로베니아, 체코는 이에 근접함

○ 교육

- 지난 10년 동안 EU 전체에서 박사생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, 이는 키프로스를 제외한 9개국에서도 마찬가지
- 반면, 고등교육에 진학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, 특히 리투아니아는 젊은 층의 58.2%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고 이는 EU 평균을 훨씬 웃도는 수치

○ 공동 출판물 및 파트너십

- 해외에 최소 한 명의 공동 저자가 있는 과학 출판물 수는 10개국 모두에서 증가하였고, 특히 키프로스와 에스토니아에서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, 이는 EU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의 이점을 보여줌
- 또한, 민관 공동출판물의 수의 급격한 증가도 민관 R&D 파트너십의 강화를 보여줌

○ 기업의 R&D 지출

- 해당 국가들이 취약한 분야 중 하나는 기업의 R&D 투자인데, 체코, 에스토니아, 헝가리, 폴란드 등의 국가들은 민간 부문의 공공 R&D 지출 측면에서 EU 평균을 따라잡고 있는 반면, 슬로베니아는 평균을 상회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research-and-innovation-gap/ten-graphs-show-how-research-landscape-eu-2004-members-has-changed>>

6 EIT Health, 바이오뱅크 및 보건데이터 온라인 허브 구축(5.9)

- EIT Health Scandinavia는 연구원들의 유럽 바이오뱅크* 및 보건 데이터 레지스트리에 대한 용이한 접근과 활용 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허브를 출시함

* 혈액, 조직, 세포, DNA 등의 인체자원 및 의료기록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

- 이는 유럽보건데이터공간(EHDS) 계획 채택 후, 그동안 기존 바이오뱅크와 데이터 레지스트리 활용 부진*에 따른 집행위의 차기 목표인 보건데이터 단일 시장 구축을 위한 것임

*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뱅크 샘플 활용률은 10% 미만

- EIT Health Scandinavia 전무이사 Portela는 새로운 온라인 허브가 협력 촉진과 모범 사례 공유를 장려하며, 유럽 전역의 바이오뱅크 및 보건데이터 리소스에 대한 접근 강화를 통해 “문제점 극복을 위한 촉매제” 역할을 할 것이라 전함
- 동 허브는 유럽 바이오뱅크 연구 인프라와의 협력을 통해 설립되었으며, One-stop-shop으로 구성되어 모든 바이오뱅크 및 보건데이터 레지스트리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무료로 플랫폼에 추가할 수 있으며 여러 국가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할 수 있음
- 유럽은 데이터 공유 확대를 국내 신약 발전의 핵심으로 보고 있으며, 온라인 허브를 통해 자원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표준을 제공하고, 유럽 보건데이터의 효율적인 통합을 촉진할 것
 - 지난달 유럽의원(MEP)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데이터 재사용을 위한 새로운 인프라, 규정 및 표준을 만드는 EHDS에 대한 최종 합의를 채택함
 - Portela는 바이오뱅크 및 보건데이터 레지스트리의 장점으로 신약 개발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저장된 샘플에 대한 접근을 통한 기업의 샘플 수집, 보관 및 처리에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절약을 언급하였으며, “EHDS 표준 및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동 플랫폼은 더 광범위한 유럽 보건데이터 생태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”이라 전함
 - 유럽제약기업연맹(European Confederation of Pharmaceutical Entrepreneurs) 수석 정책 담당자인 Vranken은 중소기업 또한 바이오뱅크 및 유전학 데이터에 대한 하나의 공통 액세스 포인트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
- 바이오뱅크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, 단순한 레지스트리 통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존재
 - 초기에는 연구원 사무실 또는 병원에 데이터 및 샘플들이 저장되어왔으며, 2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바이오뱅크의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원인 Argudo-Portal가 전함
 - Argudo-Portal은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바이오뱅크가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만큼 사용되지 않음을 지적

- 이에 대하여 바이오뱅크에 대한 연구원들의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, 많은 연구원들은 바이오뱅크가 지나치게 관료적이라고 생각하거나, 연구원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샘플이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 기피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함
- 또한, EIT 포털이 많은 연구원들을 위한 획기적인 도구일지라도 레지스트리를 단일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임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european-institute-innovation-and-technology/eit-health-moves-improve-access-biobanks-and-health>>

7 유럽의회 시범 조사위원, 자본시장연합에 AI 활성화 촉구(5.9)

- 유럽의회 AI법 조사위원 Tudorache는 유럽 AI 기업들이 미국 기업에 의존하는 현실에 맞서 자본시장 개혁과 유럽 내 투자 유치를 촉구하여 유럽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
 - 유럽의회 AI법 조사위원 Tudorache는 유럽 AI 기업의 세계 기술력 선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 개혁이 불가피하며, 자본 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, 유럽 AI 기업들은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미국 기술 기업의 컴퓨팅 자원에 영원히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
 - Tudorache는 유럽의 투자 자금을 유지하고 이를 유럽 스타트업 기업으로 흐르도록 지원하는 자본시장연합을 유럽의 글로벌 기술 리더십 역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음
 - 유럽 기업이 미국에 의존하는 예시로, 파리 Mistral AI 기업은 한때 유럽의 선도적인 AI 기업으로 평가받았지만, 최근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체결로 인해 모든 마이크로소프트 이용자는 Mistral AI 기업의 AI 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그 외에도 '14년 구글의 영국 AI 프로그램 개발사인 Deepmind 인수가 있음
 - 이러한 미국 자금 및 기술 의존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유럽 AI 전문가들은 유럽 집행위에 새로운 AI 모델 생성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자금 지원을 촉구
 - 그러나 Tudorache는 공공 자금만으로 AI 산업을 경쟁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을 주장하며, 동시에 빠르고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을 위한 민간 자금의 유치를 강조하였고 자본시장연합 실현과 독일과 프랑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언급

○ AI 법에 대한 기업의 반발

- Tudorache는 일부 유럽 기업들이 AI 법에 대한 관료적 부담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해 이를 인정하였으며, 동시에 법안을 간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강조
- AI 법안에 대한 반발은 지난 20년 동안 아무 규제 없이 자유롭게 방치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며, 이제는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며,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주장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ai/capital-markets-union-needed-unleash-artificial-intelligence-says-ai-act-rapporteur>>

2.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

1 집행위, R&I 방향성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보고서 발간(5.8)

- EU 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은 EU 회원국의 R&I 방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[연구 결과 보고서](#)를 발표
 - 동 보고서는 국가 및 지역 R&I 방향성의 구조와 수단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함
 -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시적 관점과 특정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관점의 이중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프레임워크 개발

<출처 : <https://research-and-innovation.ec.europa.eu/news/all-research-and-innovation-news/how-assess-directionality-eu-member-states-ri-policy-2024-05-08-en>>

2 집행위, 운송 및 모빌리티 프로젝트에 1억 6,350만 유로(5.13)

- 호라이즌 유럽 필라2 클러스터5(기후·에너지·모빌리티)와 관련하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자동화 모빌리티 시스템에 1억 2,550만 유로, 운송수단을 위한 배터리 연구에 3,900만 유로 지원
 - 동 공모는 EU의 그린 및 디지털 목표에 따라 EU 운송 시스템 향상을 위한 82개의 이니셔티브를 포함하는 실행계획과 함께 '20년 채택된 EU의 지속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전략을 지원하기 위함
 - 서로 연결된 다양한 교통수단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디지털화 및 자동화가 핵심이 됨
 - 2050년까지 수송 배출량을 90% 줄이고,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제로 배출을 하여 안전한 교통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funding-intelligence-how-policy-guiding-horizon-europe-transport-research>>

3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고 모음(5.14)

- MSCA, 포닥 펠로우십에 4억 1,718만 유로, 박사 네트워크에 6억 860만 유로

- **Alzheimer Netherland, Early Career Grant로 개별 프로젝트에 12만 5,000유로 지원**
 - '24년 말까지 박사 학위를 수여할 예정인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며, 공고는 6월 25일에 마감됨
 - 알츠하이머 및 기타 치매의 원인과 기전을 연구하여 치료법 개발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
- **유럽 분자생물학기구(EMBO), 세 가지 보조금으로 젊은 과학자 지원**
 - 포닥 펠로우십을 통해 유럽 및 전 세계의 박사후 연구원 지원
 - Scientific Exchange Grant를 통해 전문 지식 이전 및 국제협력 지원
 - New Venture Fellowships을 통해 새로운 연구 분야에 진입하는 젊은 과학자 지원
- **덴마크 칼스버그 재단, Semper Ardens Accelerate 보조금으로 67만 유로**
 - 새로 임명된 종신직 부교수가 독립적인 연구 그룹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공고는 6월 30일에 마감됨
- **보쉬 연구재단, 박사연구원에 62만 유로**
 - 재단에서 박사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며, 현재 지원되는 주제는 알고리즘,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, 재료과학 및 의료 기술 등 다양
- **알렉산더 폰 훔볼트 재단, 포닥 펠로우십을 통해 연구원들에게 매달 2,670유로**
 - 전 세계 연구원들이 독일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
- **영국 자선단체 Wellcome Trust, Early career Awards로 최대 40만 파운드(46만 유로)**
 - 지원금은 해외주재수당, 간접비 등 추가 자금을 제공하며, 공고는 5월 21일 마감됨
- **스위스 국립과학재단 Ambizione, 젊은 연구자 프로젝트 지원**
 - 스위스 고등교육기관에서 스위스 및 해외의 젊은 연구원들이 자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, 공고는 11월 1일 마감됨

<출처 : <https://sciencebusiness.net/news/funding-radar-weeks-ten-most-interesting-calls-targeted-young-researchers>>

3. EU 주요 연구성과

① [성공사례] 미래 공장을 위한 로봇공학 교육 기술 습득

- EU 지원 MASTER 프로젝트는 확장현실 기술 개발자를 위한 최초의 공개 모집을 개시, 이는 제조 분야의 확장현실 기반 교육을 위한 개방형 플랫폼에서 사용할 디지털 학습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함
 -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제조 공정에 로봇이 도입되며, 효과적인 로봇과 인간의 상호 작용의 중요성이 부각
 - 확장현실(XR) 기술은 산업용 로봇이 사람과 가까운 거리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, 작업자의 하이브리드 솔루션에 대한 이해와 사용을 향상하기 위해 제조 분야에서 로봇공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
 - 이러한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MASTER 프로젝트는 프로그래머가 로봇공학에서 XR 교육 콘텐츠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개방형 XR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음
- 플랫폼의 세 가지 주요 XR 기술에는 안전한 로봇환경을 위한 건강 및 안전 시연기, 유연한 로봇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을 위한 시연기, 인간-로봇 간의 고급 상호 작용을 위한 시선 기반 시연기가 포함
 - MASTER는 XR 기술을 활용하여 로봇공학 교육 및 학습 프로세스를 촉진함으로써 지능형 디지털 기술을 산업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
- 동 프로젝트는 관심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자체 XR 개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첫 번째 공모를 개시
 - '24년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공모는 XR 기술을 개발하는 모든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XR 기술을 사용하여 입증되고 즉시 배포 가능한 디지털 학습 솔루션의 생성 및 테스트에 중점을 둠
 - 이는 업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교육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 모음을 컴파일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, 그 후에 이러한 라이브러리는 프로젝트의 개방형 XR 플랫폼에 통합되어 제조 분야의 XR 기반 교육에 대한 참조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- 산업 교육을 위한 XR 기술의 잠재력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MASTER 프로젝트는 'MASTER Matters'라는 제목의 새로운 비디오 시리즈를 출시
 - 첫 에피소드에서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“우리는 전통적인 형태의 훈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, 그것을 완성하고 새로운 기술로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”고 말함
 - XR 기술은 교사가 가상 환경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재 교육 방법보다 더 상호작용적이므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간주됨

MASTER

- 기간 : 2023.01.01.~2026.06.30.
- 예산 : 약 833만 유로 (EU 약 800만 유로 지원)
- 총괄 : PANEPISTIMIO PATRON (그리스)

<출처 : <https://cordis.europa.eu/article/id/450527-mastering-the-art-of-robotics-training-for-tomorrow-s-factories>>